

투데이

내일 한·미 FTA 발효…농축산 자구책 마련은

생산가 낮추고 판로개척 해야 산다

전남 1조4천억 피해 예상…道 대책마련 부심

이젠 하늘만 믿고 농사 짓기는 힘들어졌다. 15일 새벽 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전남지역 농가도 생산 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우 가격 불리해도 품질은 우월=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로 전남지역 농가 소득이 앞으로 15년간 1조4085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해는 축산 분야가 1조500억원(74.5%)으로 가장 우려된다.

전남도는 한우의 생산비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까지 94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억대 고소득 어업인 전남에만 2200여명

10억이상 49어가

전남도는 13일 “지난해 1억원 이상 벌어들인 어업인이 2200여 어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2만10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해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어업인도 49 어가였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548 어가(7.1%)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264 어가(1.2%)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08 어가(1.0%) ▲5억원

광산구·남구 국·공유재산 관리 우수

광주시는 2011년 자치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국유재산분야는 광산구 그리고 공유재산분야는 남구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국·공유재

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구에서 추진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

/홍행기자 redplane@

姜시장 아들 근무 회사에 10억 투자

市 출연기관…강시장 “절차 정상, 아들 사직” 해명

이상 10억원 미만이 151 어가(0.7%)였다. 또 분야별로는 패류 양식, 어선어업, 해조류양식, 가공·유통 345 어가, 어류양식, 내수면 양식, 천일염 순이었고 시·군별로는 패류 양식장이 많은 완도군이 707 어가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고소득 어업인이 많은 것은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남 청정 수산물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성현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고소득 어업인의 사례를 보급해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기자 kroh@

돈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씨돼지 개량 작업 등이 시급한 이유다. 이 밖에 닦고 생산비가 당한 한국 1311원, 미국 639원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조류 등을 이용한 새장을 개발하고,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1973년에 비해 2009년 현재 전남의 기온은 1.03℃ 높아지고, 강수량은 198mm 증가한 반면 일조시간은 379시간이 증가했다. 그 만큼 갈 수록 농작물을 키우기 힘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축산 다음으로 과수 2145억(15년간), 채소·특작 등 14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작물은 로열티 부담이 늘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